

# 전주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스마트 시티'

### 시·LX·한컴 그룹, '스마트 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 개최 데이터·네트워크·AI·IoT 기술로 도시문제 해결 방안 등 모색

전주시가 무선 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도시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편리한 스마트시티를 만들기로 했다.

시는 25일 국립무형유산원 열우마루 대공연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북시의회 의장, 최창학 한국국도정보공사(이하 LX) 사장등 민·관·산·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 전주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는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과 최귀남 델(Dell) 테크 전무의 '우리 생활의 변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한 프리토크를 시

작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전주시 스마트 시티 추진방향'을 주제로 △시민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 솔루션 도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구현 △민·관 협력으로 전수형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 △민간·공공데이터 융합기반 도시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시티 추진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데이터(Data) △네트워크(5G)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 신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 '시민이 만드는 전주, 사

람중심의 전주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전주 시민의 일상(LX) △국가시범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방향(국토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만들기(한컴라이프케어) △영화에 그려진 미래 첨단도시(동아대학교)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LX의 '디지털트윈이 가져다주는 전주 시민의 스마트한 일상' 발표에서는 컴퓨터에 현실 속 사물의 가상공간을 만들어 미리 재난과 환경변화 등을 시뮬레이션 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게 될지에 대해 잘 설명하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헬린지사업 및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계획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 전략 등 단계적 스마트시티 확장 계획 및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시는 이러한 정부계획에 발맞춰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스마트시티과'를 신설, 전수형 스마트시티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이해관계자, 전문가, 기업, 지자체 등 시민참여 문제해결 랩(Lab)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으로도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사업, 전주시 데이터 현황지원 등 분석

을 토대로 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고도화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동시에,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시티 민·관 협력사업 발굴 △정부의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에 적극 대응 △노후지역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 및 국책과제 참여 등 관련 사업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형조 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초지능 기술 기반의 전주 스마트시티를 구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이 향상돼 시민이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시민이 만드는 전주, 사람 중심의 전주 스마트시티 구현을 목표로 전주민의 특화된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을 발굴해 전주시의 신성장동력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일제 잔재,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해야”

### 김승수 전주시장, 간부회의서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일제 잔재로 알려진 공무원의 직급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5일 간부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급명칭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잔재인 만큼 명칭을 바꾸고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직급명칭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내부에서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 직급 중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이사관'과 '서기관'은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강요에 의해 설치된 한국통감부와 총독부의 관직명이다. 또 실무공무원들도 통상적으로 '주무관'으로 호칭되지만, 공식 문서 상에서 사용되는 법령상 직급명칭인 '사무관'과 '주사', '서기' 등은 모두 일본의 관직명을 그대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김 시장의 지시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무원 직급명칭 변경을 위해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무원 직급의 명칭이 일제 잔재를 널리 알리고, 일제 청산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와 별도로 시는 법령 개정 이전까지 공식문서 등을 제외하고는 시 내부에서만이라도 기존의 명칭을 쓰지 않고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우리는 역사를 기념하는데 머물지 않고, 일제 잔재 청산을 통해 자긍심과 역사 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를 쌓아야 한다”면서 “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것과 동시에 직원 공모 등을 통해서 통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직급명칭을 스스로 정해 부르는 방법 등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제21회 전주 명품 복숭아큰잔치. 25일 전주 덕진종합경기장에서 열리고 있다. 지역특산품인 전주 복숭아의 인지도 제고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열리는 복숭아큰잔치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북시의회 의장, 전영배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회장 등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송효철 기자

## 전북혁신도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전주시의회서 건의안 채택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북시의회 의장)가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25일 전주시의회에서 제24차 월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확대되고 있지만 지방의원과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이 부재하다”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방의회 연수기관을 전북혁신도시에 설립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전북혁신도시에 지방의회 연수기관이 설립된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개발원과 함께 최적의 교육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다”며, “지방의회 연수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부의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 장애인체육회 체력인증센터 지원 대상 선정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앞으로 송천동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방문하면 심폐지구력과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맞춤형 운동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전주시가 최근 장애인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운영예산 금 7270만원과 장애인체력측정 장비를 지원받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인 송천동 전주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운동처방사와 체력측정사 각각 2명씩 총 4명을 채용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 군산해경, 해안가 무단 방치 FRP 선박 집중 단속 실시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가 관내 해안가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선박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25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선박에 대해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FRP는 가볍고 고강도로 금속 재질과 비교했을 때 녹이 슬지 않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어 일반 플라스틱과 혼란해 어선을 건조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명이 다한 FRP선박의 경우 정상적으로 해체·폐기되지 않은 채 해안가 등에 방치될 경우 플라스틱이 분쇄돼 나오면서 인체나 해양생물에 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해경은 해양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단속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신고했다.

형 확정과 무관하게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현행법상 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지이 상실되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강석훈 기자

##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교육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대장 정진영)는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고속도로의 특성상 응급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 등 응급의료기관의 도착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초로 도착한 현장 경찰관이 환자의 상태에 즉시 대응,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거나 기도를 폐쇄한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교육은 3개 팀의 현장경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 적의시간을 선정, 총 이틀에 걸쳐 각 팀별 2시간씩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 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0만원 확정

### 2013~2015년 공무원 4명 근무평정 개입 “임용권자라도 근평 순위 변경, 법 위반”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66) 전북도교육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 담당자들이 단순히 근무평정 절차에서 평정 결과 확인자를 보조하는 일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 하던 법령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으며,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승진 임용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방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한 4차례 근무평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강석훈 기자

##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 “수상태양광·카지노 설치 ‘안될말’”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카지노 설치 사업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세계 최대규모의 2.1GW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더불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달 ‘복합리조트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새만금에 카지노가 포함될 복합리조트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 해수유통 없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에 따르면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 수질조사 지점 13곳 중에서 9곳이 화학적산소요량(COD)기준으로 6급수(10ppm초과)를 기록하며 최악의 수준으로, 새만금호의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수질이 개선되지않는다면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계획도 없이 수상태양광 광발전소 설치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죽음의 호수위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무책임 행정의 극치이자 막개발이 아닐 수 없다”며,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추진 전에 새만금호의 수질과 생태계 개선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송효철 기자

## 더위·병마에 지친 환우들을 위해

### 전북대병원서 CBS소년소녀합창단 ‘행복콘서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25일 병원 본관에서 '전북CBS소년소녀합창단'과 함께하는 행복콘서트를 진행했다.

작은 음악회 형식으로 이뤄진 행복콘서트는 무더위에 지친 환우와 내방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의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환우와 내방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공연에서는 '하! 할렐루야, 푸르른 사냥가, 오빠 생각, 고향의 봄, 별 헤는 밤, 누군가 널 위하여, 내가 바라는 세상' 등 환우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쾌유를 기원하는 곡들을 엄선해 감동의 무대를 연출했다.

공연을 펼친 전북CBS소년소녀합창단은 전북권 크리스천 초·중·고학생들로 구성된 소년소녀 혼성합창단으로 북경전파와 지역

내 음악저변확대를 목표로 1997년 창단됐다.

창단 이후 환경음악회와 전북합창제, 전라예술제, 평화합창제, 소리축제 등 550여회의 다양한 국내 공연은 물론 미국과 유럽 호주 등 해외공연을 통해 인간의 교 화 활동도 하고 있다.

도립오페라단과 (사)호남오페라단의 오페라 '카르멘, 라보엠, 투란도트' 등 10여편의 유명 오페라에 출연해 수준높은 공연을 선보였으며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공연과 세계 소리축제 등 많은 행사에서 축하 연주활동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 익산서 절도 피의자 검거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피의자 검거됐다.

25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

일 익산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장치 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선글라스(시가20만원)를 훔치는 등 15일까지 총 200만원 상당품을 절취했다. /김영태 기자